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1호 2019년 12월 5일(목)/계간

발행인 · 김두년 총장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제 4대 총장 김두년 박사 검소한 취임식 개최!

0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 · 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02 괴산군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상호 협력 다짐

02 취창업지원센터, 충북 우수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여!

03 '대학발전 자문위원회' 15명 위촉장 수여

03 '너의 합격을 응원해' 찹쌀떡 나눔 행사 진행

03 협약식

Students News

04 경찰행정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현장수업 실시

04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 찾아오는 영화' 행사 개최

04 日에서 열린 '2019 한중일 하계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에서 우수한 성과

04 보건행정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견학

04 간호학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감사패 받아

05 다짐의 촛불로 세상을 아름답게 –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Social News

06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함께해요! –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07 봉사 어렵지 않아요~ – 심봉사와 알아보는 봉사 스토리

08 자원봉사에도 고민이 필요해! – 다양한 봉사활동, 나와 꼭 맞는 봉사 찾기

09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나누다! – 문화체험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JWU in 人

10 김두년 총장님에게 듣다

Life in JWU

11 PICK ME, PICK ME UP! – 새로운 동아리

Our story

12 너의 겨울방학이 궁금해!

13 꿈꾸는데 장소가 중요해? – 해외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중원인 스토리

14 중원대학교를 다독다독 – 우리 대학 다독왕!

Career

15 당신도 발표을렁증?

Culture

16 괴산에서의 힐링 스팟

Special

17 딱! 붙어라 중원대! – 정시수험생에게 알려주는 노하우

18 예비 중원인들이 꿈꾸는 중원대학교는? – 수시 면접 수험생 설문조사

19 우리 대학은 이게 짱이야! – 우리 대학 자랑거리 소개

20 정시 면접자가 꼭 봐야 할 수시면접현장!!

20 157만의 Pick! 글로벌 유튜버 Sam과 함께 추억을 쌓으Sam

제 4대 총장 김두년 박사 검소한 취임식 개최!



▲ 김두년 신임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9월 2일 11시 본관 CEO룸에서 제4대 총장 김두년 박사의 취임식을 열었다. 김 신임총장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회의 총장 임명절차를 거쳐 제4대 총장에 선임됐다.

이날 취임식은 김 신임총장의 철학을 반영하여 가족 및 외부인사 초청을 생략하고 교직원과 학생대표만 참석해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축소했다. 절감되는 예산은 전액 학생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 신임총장은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창의인재교육 강화 △대학구성원 지원 강화 △글로컬 역량 강화 △RC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운영 △행·재정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행사 말미에는 대학구성원과 소통의 시간으로 '신임총장에게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임식 후에는 교내식당에서 교직원과 잔치국수를 함께 먹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두년 신임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감한 교육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중원대학교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며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수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화합과 안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보다 멀리 보고 보다 큰 대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장은 건국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중원대 개교부터 교수로 재직하며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편집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 · 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공사와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 김두년 총장

우리 대학이 11월 12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항공·물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날 우리 대학을 비롯한 경상대, 목포대, 인천대, 인하대, 초당대, 한국교통대, 한국항공대, 한서대 총 9개 대학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항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약체결과 함께 각 학교당 1억 원씩, 총 9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구본환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은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항공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이번 산학협력협약 체결과 공사의 발전기금 지원이 국내 항공·물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협약은 중원대가 우수 항공·물류 전문인력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원에 감사하다. 항공·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년 연속 1위'를 수성한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국내 대학에 항공전문인재 양성을 후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학 괴산군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상호 협력 다짐

우리 대학과 괴산군이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리대학은 10월 2일 본교 교무회의실에서 괴산군(군수 이차영)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괴산군 최초로 설치된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는 지역사회 고령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괴산군이 주관하고 지역중심대학인 우리대학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센터는 4년간 연구개발비 연 1천 만 원이 투자되며 각종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노인일자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및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은 "지역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환경자원, 교육 및 인적자원, 시장 및 재정자원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확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년 중원대 총장과 이차영 괴산군수는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판식을 가졌다.

이차영 군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에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중원대학교와 긴밀히 협업해 품격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취창업지원센터, 충북 우수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참여!

취창업지원센터가 재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2019년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전문기업 ㈜지에스씨넷이 주관한 프로그램에는 우리 대학 재학생 40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충북 우수중소기업인 ㈜넥스팜코리아, ㈜TNP의 시설견학 및 직무체험, 취업역량강화스킬 교육, 실무자 특강과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기업탐방을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지역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연숙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중원대는 매 학기 지역 내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 역시 참여하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기업 취업 및 조기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창업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견, 중소기업들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충북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탐방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2019년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대학발전 자문위원회’ 15명 위촉장 수여

우리 대학이 9월 3일 교무회의실에서 대학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각계 전문 인사로 구축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중원대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와 사회봉사, 학생지도, 산학협력과 취·창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발전자문위원회 위촉을 마치고 참석자 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괴산군의회 신동운 의장 ▲괴산군 박해윤 부군수 ▲충청북도교육청 김상열 과장 ▲충북테크노파크 김진태 원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영철 교육장 ▲괴산소방서 장창훈 서장 ▲중원대CEO총문회 이종진 회장 ▲괴산군민장학회 김태익 회장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신우식 회장 ▲괴산군여성단체협의회 조보현 회장 ▲괴산군노인회 문재열 회장 ▲괴산군의정회 안종운 회장 ▲괴산성모병원 김종성 병원장 ▲(전)충북도청문화체육국장 지용옥 전)국장 ▲괴산향토사연구회 김근수 회장으로 총 15명이다.

위촉장 수여에 이어 운영위원장에 문재열 괴산군노인회 회장을 추대하고 각 자문위원들의 전문분야에 맞춰 △지역사회협력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사회봉사 등 각 지역사회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두년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 중심대학으로서 중원대학교를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자문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열 자문위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구성한 대학발전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활동으로 획기적인 대학 경영 방침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0년 8월까지 1년이다. 〈편집부〉

수시모집 면접 ‘너의 합격을 응원해’ 찹쌀떡 나눔 행사 진행


▲김두년 총장(왼쪽)이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9월 27일~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020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실기고사 기간 내 본관 로비에서 ‘너의 합격을 응원해’ 합격기원 찹쌀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원대를 방문한 수험생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험생 1000여 명에게 찹쌀떡을 전달한 후 예비 신입생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지 작성을 진행했다.

또한 중원대는 면접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면접 대기실에서 학교소개 및 생활안내, 학과진로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항공정비학과에 응시한 김민지(정왕고 3, 여) 학생은 “실제로 중원대학교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학교라 놀랐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했지만 교수님이 친절하게 다독여주셔서 편하게 면접을 봤다”며 “합격 찹쌀떡 먹고 꼭 합격해서 멋진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겠지만 성실히 면접에 임한다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 다양한 장학혜택과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원대학교에 합격해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편집부〉

사진 – 임현준 기자

PHOTO NEWS

협약식



▲ 국제대학교와 교류협약 체결
8월 6일 국제대학교와 양 대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 괴산군과 업무협약 체결
10월 2일 우리 대학이 괴산군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10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학생창업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교류협약 체결
10월 29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특허법인 성암과 업무협약 체결
10월 15일 우리 대학이 특허법인 성암과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청대학교와 교류협약 체결
11월 13일 충청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대학교와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행정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현장수업 실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수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30여 명의 학생이 9월 25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과학수사 현장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수업은 △국과수 역사 및 역할 △법의학 △과학수사 Q&A △현장 변사체 해부관찰 등의 현장교육을 통해 미래 치안질서와 범죄예방을 담당할 경찰관을 꿈꾸는 전공 학생들의 범죄감식, 변사체 처리, 포렌식 등 과학수사 활동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수업에 참여한 김성태(경찰행정학과 3)학생은 "생생한 과학수사, 포렌식 기법을 공부하게 되어 보람찼다"며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면 범인체포와 증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택 교수(경찰행정학과 학과장)는 "이번 국과수 현장수업은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경험해보면서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경험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경찰행정학과는 대학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간 '생애멘토링교수제(CMP)'를 통해 현장실무와 실습 중심교육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경찰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다. 〈편집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 찾아오는 영화' 행사 개최



▲공연을 마친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극영화학과가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찾아오는 영화'(이하 찾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괴산보훈원, 괴산청소년문화원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연극영화학과는 '2019학년도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영상트랙 〈중원영화제-시즌 1(여름)〉' 영화제를 통해 지역의 학생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역민들에게 지역 문화예술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극영화학과의 학생들은 충북 괴산의 예술 전문인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융성과 지역화합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컨텐츠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이태규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창과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문화 나눔을 실천하려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괴산고추축제', '2019 청주야행', '충주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등 굵직한 행사의 중심에서 학교에서 익힌 예술적 기량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을 통해 퍼포먼스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극영화학과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찾영' 행사 진행, 지역 문화행사와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편집부〉

日에서 열린 '2019 한중일 하계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왼쪽 사진)경진대회 참석자들이 대회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왼쪽부터 이지연 교수, 오승주, 이승훈 학생.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지난달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진행된 '2019 한중일 하계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SPIED 2019 in YAMAGUCHI)'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한·중·일 총 1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각국의 대학생들이 국제팀을 구성하여 기계,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작품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창의인성교육센터에서 학내 공모를 통해 2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스마트 우산 통(Smart Umbrella Barrel)을 만든 생체의공학과 오승주 학생(지도교수 이지연)과 스마트 여행용 가방(Backpack for Travelers)을 만든 전기전자공학전공 이승훈(지도교수 이흥찬) 학생이 동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지연 창의인성교육센터장은 "이번 국제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학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지난해 군산대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국제 융합 캡스톤디자인 SPIED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대상을 포함해 참가 학생 5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편집부〉

간호학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감사패 받아



▲간호학과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가 9월 23일 가톨릭의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소장 김태규)으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펼친 데 대한 감사 의 의미를 담아 전달한 것이다.

간호학과의 주최로 진행된 캠페인은 간호학과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확한 기증절차와 정보를 알리고 자발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동안 총 521명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특히 기증희망자로 등록 후 총 2명이 지금까지 기증을 실천하였는데 생면부지의 백혈병 환우를 위해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방법(성분헌혈 방식)으로 기증해 완치의 기회를 제공했다.

간호학과 김종임 교수는 "형제자매간의 조직적 합성항원형이 일치할 확률은 25%이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일치자를 찾기 매우 어려우며 비혈연 간에는 일치 확률이 수천수만 명중의 한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18~40세 미만의 건강한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련기사 06면

보건행정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견학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이 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 김필권 교수와 제자 60여 명이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 김필권 교수와 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규채용 동영상 시청과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배께서 학생들과 방문해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보험공단 홍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필권 교수는 "보건행정을 배우는 보건행정학과 재학생들에게 건강보험관련 큰 정책을 설명할 기회와 실무현장경험을 하게 해 준 건보공단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은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행정학과 초빙교수인 김필권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편집부〉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다짐의 촛불로 세상을 아름답게





▲1학년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간호사로서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해 열정 어린 공연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많은 축하 속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선서식입니다. 일생을 헌신하며 의롭게 살기로 약속한 중원대학교 예비간호사들의 설레는 감정을 저희와 함께 느껴봅시다. 최영민 기자 redcamplsa@gmail.com



▲선서식에 참여한 학우들이 순서에 맞춰 단상 위로 올라가,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뜻하는 촛불을 점화하고 있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임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표정은 촛불처럼 밝았다.



▲선서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로의 촛불을 밝히며 예비간호사로서의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다.

선배들의 한마디



▲왼쪽부터 김시인, 류제희(간호학과 2학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예비간호사 류제희입니다.

Q.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며, 예비간호사로서 여기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을 상상하면 많이 설레기도,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교수님과 간호학과 동기들, 그리고 믿고 지원해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Q. 예비간호사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제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직업인데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기점으로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된 후에 직업의식을 갖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겠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멋지고 세심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김시인입니다.

Q. 나이팅게일 선서식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간호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고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헌신적인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서식을 통해 마음가짐을 정리하며 직업의식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어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새롭기도 합니다.

Q. 예비간호사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을 마주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도전정신으로 극복할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낭독문의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사랑과 헌신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이팅게일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저의 훗날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빈(간호학과 2학년)

Q.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1학년 때 당시 선배님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켜보며 단상 위에서 올라선 저를 상상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나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학생회이기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직접 준비했는데, 2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 마음처럼 잘 따라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힘들고 힘난한 환경에서 부딪힐 때마다, 오늘 배운 용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축하해준 모든 분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Q. 예비간호사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의의 천사라는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내 가족같이 살피고 간호하는 전문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에 발맞추어 남들보다 앞선 생각과 사고를 할 것입니다. 간호 지식은 모든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질이기에 간호 지식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훗날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의 한마디



▶ 오하은(간호학과 1학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기까지,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대외활동도 준비하면서 노력하셨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이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간호사라는 꿈에 가까워지신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지금의 마음을 유지하셔서 꼭 좋은 간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유진(간호학과 1학년)

선배님들, 내년부터 실습을 나가면서 더 바쁘고 힘든 학교생활이 시작될 것 같아 후배로서 저의 마음도 편하지 않네요. 그래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 마음에 새로운 목표와 의지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소중한 느낌을 오래오래 간직하신다면,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함께해요!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백혈병이나 혈액암 등 난치성 혈액 종양 환우들에게 자신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고, 우리 중원대 학우들도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볼까요?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조혈모세포은행 기증희망자은행팀 팀장 법수희

Q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법수희 팀장님을 모셔보았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기증희망자은행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법수희입니다.

Q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이며 골수와 말초혈, 제대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우는 항암제나 방사선 등으로 자신의 병든 세포를 모두 소멸시킨 후 조직적합성항원형(HLA type)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적절한 시기에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우와 기증자의 HLA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우와 기증자 간 HLA형이 일치할 가능성은 부모와는 5% 이내, 형제자매 간에는 25% 이내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비혈연과의 일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기증희망자로 등록해야 이식 대기자의 일치 확률이 높아집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직적합성항원형 검사를 위해 약 3ml 정도의 혈액을 채혈하게 됩니다. 그 후, HLA형이 일치하는 환우가 나타나면 상담을 거쳐 최종 가능 의사를 확인합니다. 기증 의사를 표현한 기증자는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과 골수기증, 두 가지 방법 중에 기증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하고, 골수기증은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 2~3주 이내에 회복 확인검사가 진행됩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나요?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부위에 가벼운 출혈, 감염 및 마취(골수기증)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후유증 발생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골수나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더라도 2~3주 이내에 기증 전 상태로 조혈모세포가 회복되므로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Q 기증희망자의 등록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비혈연 골수기증 희망자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분들로 HIV 간염, 악성종양, 고혈압 등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증희망시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증 희망등록증

간호학과 19학번 이성재



Q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마와 싸우며 항암치료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환우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라고 느꼈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의료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이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 기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원상회복되기에 위험부담도 없고 준비과정 및 채취와 관련해서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많은 사람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가지고 기증희망자로 등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증 희망등록증

간호학과 19학번 송지훈



Q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학교에서 캠페인이 진행되어 처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증 활동은 모두 그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의미 있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려고 기증희망등록을 진행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기증은 생명을 구하고 뿌듯함도 느끼며, 남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기증희망자로 등록해야지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기증희망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증 희망등록증

간호학과 18학번 황은경



Q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작년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혈연과의 일치 확률이 매우 희박한 일이라 많은 사람이 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채혈하는 것을 무서워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예전에는 골수기증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굉장히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하기에,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기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기증자의 휴가처리가 가능하고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도 짧은 조혈모세포 기증, 많이 참여해주세요~

심봉사와 알아보는 봉사 스토리

봉사 어렵지 않아요~





고민상담소에서 고민상담하는 모습



심봉사 단원들이 풍선아트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

누구나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봉사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 라는 어려운 말로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대학에 있는 '심봉사' 봉사동아리와 봉사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권오국 심봉사 동아리 회장 (사회복지학과 15학번)



1.먼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 동아리 심봉사 입니다. 저희 심(心)봉사는 마음 심(心)+봉사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뜻하며 괴산 일대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2.동아리에서 하시는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저희 심봉사는 괴산이라는 지역 내에 하나뿐인 사회복지학과로써 졸업 후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혹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하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인재와 함께 지역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괴산 일대 다양한 기관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괴산군청, 괴산교육청 등에서 봉사 지원 요청이 오면 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년 기준으로 방학을 제외한 1, 2학기에 총 18~40번을 진행하였고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3.봉사를 통하여 본인들이 느끼는 장점이나 생각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꼭 사회복지사로서만이 아니라 추후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봉사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4.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에 참여해주신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심봉사라는 동아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캠페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조금의 시간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과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 먼저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입사해서 현재는 청주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2002년에 입사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부는 서울시 무교동에 있고 유형별 사업장(지역본부, 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센터 등)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아동보호대표기관'을 비전으로 하여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환경)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의 영역은 크게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관마다 고유 수행 업무는 약간씩 차이가 나고, 제가 있는 청주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재단에서 일을 하시며 보람을 느낀 경험이 궁금합니다.

저는 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본부 등에서 일을 했었는데 각각의 기관에서 했던 일이 달랐고,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도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경험해 본 것도 기억에 남고, 지역본부에서 많은 기관과 협력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했을 때 친부모의 사정으로 자녀가 위탁가정에 몇 년 동안 지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동이 좋은 위탁 부모님을 만나 잘 적응하고, 친부모님은 자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4. 후원 이외의 학생들이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봉사 동아리 회원분들과 캠페인을 했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캠페인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용돈을 아껴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로 사회에서 각자의 일들을 잘 수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후원 외에 어린이재단 각 사업기관에서 자원봉사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역의 기관별로 어떤 봉사자분들이 필요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좋은 일에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꼭 홍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에도 IMF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만해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좌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 어린이재단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꼭 스펙이 훌륭해야 취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스펙+스토리,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분야 관련 경험을 많이 쌓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중원대 재학생 여러분, 심봉사 회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다양한 봉사활동, 나와 꼭 맞는 봉사 찾기

자원봉사에도 고민이 필요해!



자원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학우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중원대 학우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자신과 맞는 봉사를 찾으러 여러분도 함께 출~발↗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보건행정학과 19학번 강재은

Q.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월부터 현재까지 괴산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멘토링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티와 제가 1:1로 만나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이의 신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함께 한답니다! 가끔 아이클레이, 방향제, 퍼즐 등을 만드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멘토-멘티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다 함께 요리하는 큰 행사도 주최하고, 영화 관람과 놀이공원, 캠프 등 아이들의 문화생활에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Q.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멘토링 자원봉사는 고등학생 때 해봤던 경험이 있었지만, 장애아동과 오롯이 둘이서 많은 활동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담당 아동은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수업하는 활동에서 먼저 양보하는 기특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굉장히 잘 들어주어서 저 역시 어느샌가 부담감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평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아동에 대해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맑은 웃음은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저의 마음을 힐링시켜주기도 했답니다.

Q. 자원봉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원봉사를 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1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봉사가 있다면 다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값지고 소중한 추억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복지관 ☎문의 043-832-0862



간호학과 19학번 변다원

Q.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이크어위시재단에서 진행하는 '위시엔젤'이라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위시엔젤'은 만 3~18세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소아암과 각종 이식수술을 요구하는 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을 찾아가 소원을 도출해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위시데이를 꾸려나가는 자원봉사입니다.

Q.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성남이고, 제가 배정받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아이와 친해지는 시간부터 소원이 이루어지는 위시데이까지 총 다섯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아동을 만나기 위해서는 4시간 반이라는 먼 거리를 달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오랜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위시데이에 어떤 준비를 해야 아이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을까?'를 고민하는 저를 발견하며 '이런 것이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술을 여러 번 견뎌낸 아이의 맑은 웃음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뜨거웠던 여름만큼 열정이 가득했던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조원들, 그리고 담당했던 아동과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일깨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자원봉사'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메이크어위시재단
☎문의 02-3453-0318



간호학과 19학번 성유리

Q.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음료를 나누어드리는 봉사와 약국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분화하는 과정에 투입돼 약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환자분들의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포장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Q.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저는 간호사의 필수적인 요소인 환자의 상황에서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봉사할 때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많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그러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상황에서 생각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간호학과 실습 학생들과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을 보면서 꿈에 대한 목표의식이 더 확고해진 시간이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원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무엇보다 성실함이 요구되기에 봉사를 시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며 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봉사하는 것도 좋은 팁이랍니다!

☎문의 – 신촌세브란스

자원봉사 활용꿀팁!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의 후끈한 열정으로 가득한 봉사 후기,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교외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서를 창의인성교육센터에 제출하면, FOS 비교과 중 S영역이 최대 50시간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외 활동으로 비교과 영역을 채우기 위한 기회는 한 번뿐이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외 자원봉사활동	50시간 인정	S영역	1. 전국 및 시군구 봉사협의회 및 각 지역센터 참여확인서 제출 ex)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시군구 사회 복지협의회, 괴산청소년문화의집, 괴산다문화센터, 괴산장애인복지관, 괴산장애인노인복지관 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출력해 제출 ※참고: 헌혈도 1회당 4시간 자원봉사로 인정
교외 해외봉사단 참가	50시간 인정	S영역	1. 기업체 및 민간 기관 참여확인서 제출 ex) KT&G 복지재단,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등, 단/중/장기 구분 없이 50시간 부여)



간호학과 19학번 서주민

Q.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간 인근 한센인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어르신들을 만나,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식사를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날이 좋은 날에는 함께 산책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주어진 일 외에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자 목도리 뜨기, 노래 불러 드리기, 편지 써서 읽어드리기 등의 활동도 했습니다.

Q.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어르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한층 더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작은 일이라도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돕는 것도 봉사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숙한 게 당연합니다. 봉사활동에 온 마음을 다하여 임한다면,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경남 성심원
☎문의 055-973-6966



간호학과 19학번 이민우

Q. 경험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누리'라는 간호학과 봉사동아리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동무를 해드리고 거동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색칠 공부, 색종이 접기 등과 같이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많은 웃음을 선물로 드렸답니다.

Q.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현재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간호사가 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자원봉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대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공감과 배려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저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원봉사를 도전하세요! 파이팅~

선한 이웃의 집 ☎문의 043-832-0790

문화체험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나누다!





체험 활동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감물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놀이와 문화체험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원대 재학생들의 다양한 통일교육 문화체험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이태우 기자 dlxodn0728@naver.com



항공운항학과 16학번 오성명

Q. 통일교육 문화체험에 참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새터민 강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북한 문화 체험 재능기부를 해주는 행사였습니다. 통일과 북한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던 북한 관련 기사 또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감정이 메마르고 표현에 서툰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북한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런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남한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꼭 극복하셔서 바라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성명 학우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 전통 놀이를 가르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문장순 교수 교양학부

Q. 통일교육 문화체험을 기획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대학과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대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가 생각하는 통일" 을 주제로 민주평화통일 괴산군 협의회와 통일 토론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통일과 북한의 이해 수강 학생들과 괴산중학교, 감물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사업 시행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를 한다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대학교와 지역이 서로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민주 평화통일 괴산군 협의회, 음성군 협의회, 증평군 협의회와 지역 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우리가 수행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 학우들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복한 전통음식인 펑펑이떡과 순대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제21호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김두년 총장님에게 듣다

세계를 밝히는 커다란 빛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중원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학자 김두년 총장님.
앞으로 중원대를 글로벌 명문대학교로 이끌기 위한 목표와 여정을 언론장학기자들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원대학교 제 4대 총장 김 두 년

Q 먼저 중원 가족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과 함께 취임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중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로 중원대학교 제4대 총장에 취임한 김두년 교수 인사드립니다. 총장 취임 소감이 없을 리는 없지요. 제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이자 스승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 늘 대학의 총장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사실 모든 교수님이 한 번쯤 총장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웃음) 그런 면에서 제가 총장 자리까지 올랐으니 제 꿈을 이룬 것이고 무한한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운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총장에 취임하고 보니 총장이라는 자리가 매 순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사실 총장은 한 조직의 리더이자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 정원 감축 등 대학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았으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저는 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원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Q 중원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원대학교의 지난 발자취에 대해 총장님 선임 이전의 정책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원대학교의 발전상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이 2009년 개교 당시 원대한 꿈을 앓고 출범했습니다.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 속의 명품대학이라는 큰 뜻을 품고 개교를 했습니다. 성·경·신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설립자님의 큰 뜻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총장을 역임하신 두 분의 총장님께서는 특별한 교육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사람이 되라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 전학생 기숙사 생활을 하는 레지던스컬리지의 구현이었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수님들이 같은 캠퍼스 안에서 24시간 함께 먹고 자면서 사제동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강의를 권장하고 모든 공문서와 표지판을 영어로 함으로써 영어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학습하는 토론식 수업과 무시험 평가를 통해서 자율형 강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대총장님들이 이룩하고자 하셨던 교육방침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임 총장님들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서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Q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총장의 역할' 은 무엇인가요?

저는 취임사에서 '대학다운 대학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이 세계 속의 명품대학을 만드는 기반구축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1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중원대학교는 학생들이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총장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 역시 대학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취업 시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전공이 평생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기 전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전공을 선택해서 개인 맞춤형 전공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과 복수전공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공교육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다수의 비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보완해 나겠습니다. 취·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내의 유관기관 및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의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보장하는 직장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얻는 첫 직장이 마지막 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직장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취업 이후에도 자기직업에 충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꿈꾸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 개교 초부터 교수로 강의도 하셔서 학생들과 같이 지낸 시간도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복지정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교육환경이 있다면?

지난 10년간 저와 함께 공부한 제자들이 꽤 됩니다.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즈음 교수는 많지만, 스승님은 흔치 않습니다. 스승이란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기희생이 요구됩니다. 저도 교육자의 길을 택하면서부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간직하며 늘 제자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기억 속에서 제자들을 지우지 않고 제자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복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우지 말라고만 했지 흡연실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들고 강의실을 찾아다닐 생각만 했지 강의실에 사물함을 만들어 보관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물질적인 복지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문화적인 복지정책,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학생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학생처를 신설하였고, 학사행정의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신축생활관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학습공간을 강의실에서 생활관, 도서관, 휴게실 등으로 확대하여 어디서든지 충분한 휴식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교내에 유치하여 괴산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재학생들과 미래의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2조에서는 기숙사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자 또는 본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대부분 학생이 지역주민이 아녀서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여도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괴산군에서도 지역주민이 된 대학생에 대하여 기숙사비 보조, 전입 축하금 지급, 군민장학생선발, 지방공무원 시험 우대 등의 특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괴산군민이 된 재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산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후배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학생들은 주민등록 이전을 하셔서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신입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대학을 선택할 때 현재의 대학을 보지 말고 대학의 미래가치를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십 년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대학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빛날 대학입니다. JR언론장학생 편집

PICK ME, PICK ME UP!

우리대학 새로운 동아리

대학 생활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동아리 활동인데요, 중원대학교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을까요? 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유도동아리부터, 여행을 다니며 학업에 스트레스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여행동아리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나요? 여러분의 동아리 픽을 알려주세요!

최영민 기자 redcampisa@gmail.com

01 앱 개발 동아리 'ADD' ☎문의 : 전웅우 010-9607-6754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앱 개발 동아리 ADD입니다. 학과 동아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여러 학과가 합쳐서 창의력을 상승시키는 활동과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획, 테스트라는 파트로 세분되어 있으며 개발만 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Q. 지금까지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이 있나요?

모바일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015E'라는 앱이 있습니다. 015E는 식단, 차량 운행 같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모바일 학생증, 학교 시스템을 편리하게 열 수 있는 앱입니다. 저번 학기에는 주문을 받는 새로운 형식의 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학우분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앱 개발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컴퓨터 전문지식도 필요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동아리원들에게 서로 물어보고 배우면서 코딩 실력이 향상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배운 것 같아요.

Q.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신규 동아리이기도 하고 앱 개발이라는 분야가 선뜻 다가가기 힘들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두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웠고, 다 같이 함께 배우고 가르쳐주는 시스템이니까요.

02 여행동아리 '힐링' ☎문의 : 송한백 010-2985-8869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행동아리 '힐링'입니다. 저희는 여행을 기획하고 학기마다 여행을 떠납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중점이고 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아리여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Q.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교류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아리를 통해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사람들과 떠나는 여행이라서 새롭고 색다르답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벗어나 추억을 쌓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생각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이 있나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와 부딪혀요. 학생 신분이라서 비용, 이동수단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아리 부원이 많아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배운 것 같아요.

Q.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힐링'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원하세요! 분위기도 좋고 하는 일도 힘들지 않아서 오시면 재밌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03 유도 & 주짓수 동아리 '도미네이트' ☎문의 : 이동희 010-8716-9677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도&주짓수 동아리 '도미네이트'입니다. 유도나 주짓수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가르쳐주면서 서로가 배우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3번 모여서 운동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체력단련과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Q. 유도와 주짓수가 타 무술에 비해 좋은 점이 있나요?

유도와 주짓수는 전신의 근력, 유연성, 순발력, 균형감각을 높이는 전신운동으로 체형관리에도 도움 되고 단체 운동이라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유도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는 점에서 힘이 약해도 할 수 있고 주짓수 또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무술입니다.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어서 호신술로도 좋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게 있나요?

승리욕 때문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운동하면서 냉정하게 본인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문무겸비라는 말처럼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학기에는 동아리 부원 모두 열심히 준비해 세계무예 마스터십에서 금1, 은 2, 동 1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는 좋은 기회였고, 동아리 부원 모두 심신단련을 통해 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동아리 부원 중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학과가 모여 있어 어렵고 힘들 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04 RC 비행기 동아리 '종이비행기' *RC 비행기 동아리는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공기계공학과 과동아리 '종이비행기'입니다. RC 항공기 기성품들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RC 비행기를 설계 및 제작하는 동아리입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있나요?

RC 비행기를 제작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고, 항공기는 공업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만큼 복잡합니다. 배워야 할 지식도 매우 많고 어려워, 제작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승리욕이 생겨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수시 면접 행사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엔진 모델을 제작하고 소개하면서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뿌듯했습니다.

Q. RC 비행기 동아리의 장점은 뭔가요?

우리 동아리는 많은 공학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공학적인 지식을 몸소 체험하며 배울 기회가 일상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직접 만들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프린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 부품을 제작하기도 해서 첨단 공학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동아리 목표는 뭔가요?

저희는 지금 쓰는 소재와는 다른 재료로 RC비행기 제작도 하고 공모전이나 작품전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의 겨울방학이 궁금해!



학우 여러분들은 곧 다가올 겨울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방학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무의미한 방학이 될 수 있고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우 여러분들이 어떤 방학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경희 기자 xhq117@naver.com

01 운동하기!

항공기계공학과 14학번 백태환



이번 겨울방학에 멋진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 매일 수업 시간이 달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식단조절을 하기 힘들어서 매번 계획을 세웠지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3대 운동인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에 중점을 두어 근육 운동을 하고 식단조절을 병행해서 건강하게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2 회사 다니기!

무예경호학과 15학번 이동훈



저는 학기 방학마다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같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대기업으로 납품될 물품들을 검열하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발명품들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관련되지 않은 업무이지만 회사에서 일을 배운다는 것이 쉽게 경험할 수 없고, 앞으로의 제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03 스펙쌓기!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민지



저희 학과는 객실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처음 제가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 저의 목표는 병원 관련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토익과 같은 제2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 공부할 것입니다.

04 여행가기!

경찰행정학과 17학번 장수아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블라디보스톡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항공료가 겨울에 저렴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22살을 마무리하며 친구들과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 비용을 모으기 위해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친구들과 처음 함께 하는 여행이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만족스러운 여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05 가족여행!

의생명과학과 19학번 손우석



방학에 가족들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가족들을 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힐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를 동남아시아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 날씨가 추워서 그와 반대되는 따뜻한 나라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여행을 가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06 해외봉사!

경찰행정학과 17학번 이수화



해외 봉사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을 통하여 알게 된 월드 프렌즈 청년봉사단에 참가하면서 꿈만 같았던 2주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에도 해외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통역사 없이도 소통할 수 있게 그 나라의 언어도 공부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도전 인만큼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뜻깊은 겨울방학을 보내고 저만의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7 금연!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이규정



저는 이번 방학 때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흡연을 한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SNS를 통해 담뱃값을 저축해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한 대학생에게는 담뱃값도 부담이 되는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꼭 금연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저축도 하고 싶습니다. 금연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부터 전자담배를 이용하면서 연초를 줄이려고 합니다.

08 스펙 쌓기!

항공정비학과 16학번 강원협



저는 방학에 스펙 관리를 위해 정비사 면허 자격증을 준비할 것입니다.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는 언제든 응시가 가능하므로 필기시험을 먼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 졸업도 앞두고 있어서 학교 동기들과 대학생 시절의 마지막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다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서 바쁜 학교생활을 벗어나 친구들과 여유를 가지고 마음 편히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09 취업준비!

보건행정학과 17학번 어은빈



내년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공과 관련된 보험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고 토익학원에 등록하여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국가고시에 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국가고시 시험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 방학 동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학우들의 방학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방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 방학계획은 세우지 않은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계획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해외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중원인 스토리

꿈꾸는데 장소가 중요해?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도 마무리를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부터 해외 생활 꿀팁까지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김경희 기자 xhql17@naver.com

머나먼 땅 에티오피아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이서연(경찰행정학과 17학번)



1. 어느 나라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 이테야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과 걸스클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걸스클럽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신, 피임 등에 대해 지도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높여주기 위해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온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현지어에 익숙하지 않아 오전에는 현지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걸스클럽과 과학동아리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약 2시간씩 진행하고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다른 단원들의 수업 시간 보조 선생님으로 들어갑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그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러 갑니다. 에티오피아는 6시가 지나면 굉장히 어두워지므로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숙소에서 팀원들과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매일 회의를 통해 서로의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보통 다음 수업의 대본을 현지어로 번역하고, 다음날 계획을 세웁니다.

3. 현지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오는 직항 항공편은 거의 없으며, 비행기를 이용하여 약 1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에티오피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에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오로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는 생소한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저만의 특색있는 강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물과 전기가 자주 끊기는 점입니다. 얼마 전 5일 동안 단수가 되어 제대로 씻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자주 있는 일이지만 적응이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웃음)

4. 만약 다른 학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추천해 주실만 한 팁이 있나요?

봉사활동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팀원들과 생활하면서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하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환경을 충분히 조사해보고 현지 음식도 미리 접해본다면 더 빠르게 적응 할수 있습니다.

5. 활동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의 각오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수업 내용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남도록 구성할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환경에 적응하기 바빠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부족함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후회 없는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언어에 도전!! 김영재(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1. 어느 나라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중국 절강성 사오싱이라는 지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교류하며 시야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참가하다 보니,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값진 경험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2.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군대 전역 이후, 중화권으로의 유학을 희망하였습니다. 중국어 공부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항상 큰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어서, 큰 무대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침, 학교 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게시판에서 보게 된 후 면접 일자, 준비 과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 하루 일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첫 수업이 8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 30분에 기상 후 아침을 먹고 8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진행한 후 간단한 휴식 후 오후 4시부터는 언어 친구를 만나거나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학교 내에 도서관과 카페 등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로는 운동하고 기숙사에 돌아온 뒤에는 취침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 과목들에 대한 숙제와 예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취침 시간은 새벽 2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행사가 많은 달에는 운동회나 장기 자랑 등 본인이 참가하는 대회에 대해서 스스로 그룹을 편성하여 연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누대회, 경극대회, 운동회, 노래대회 등 여러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최근에 일과의 변동이 커 공부 시간까지 확보하려다 보니 틈틈이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 현지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좋은 점은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QR코드로 해결합니다. 음식점, 헬스장, 병원, 옷가게 등 모든 생활에 녹아 있어서 정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착합니다. 제 선입견과는 달리 정말 착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든 점은 시간 약속에 대해서 아직은 서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수정을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정 직전에 공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힘들고 난처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5. 만약 다른 학우들이 교환학생 활동을 하게 된다면 추천해줄 만하신 팁이 있나요?

외국에 나온 만큼 정말 열심히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과 본인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열심히 공부한 후,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표현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며, 내가 외운 표현들을 계속 사용해보려는 자세가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현지인에게 다가갈 때 언어 실력이 정말 조금씩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6. 활동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단지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의 모습을 숨기고 너무 공부 쪽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와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원래의 제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중국 중학생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서 귀국하고 싶습니다.



제21호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우리 대학 다독왕!

중원대학교를 다독다독

다독(多讀)은 삶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원대학교에서 누가 가장 책을 읽을까요? JR이 중원대학교 다독 학생들의 추천 도서와 책의 장점,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민 기자 redcampisa@gmail.com

식품공학과 19학번 김준석



Q.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독서를 즐긴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반년가량 취업을 했다가 재수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독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책을 읽는 것이 어딘가에 사용될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지만, 책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점점 독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Q. 즐겨 읽는 책에 장르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계발 서적과 문학 작품들을 주로 읽습니다. 자기계발 서적들은 저 자신이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책에 나온 대로 실천하면서 생각의 성장과 더불어 많은 행동이 개선되고 발전했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는 힘든 삶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문학작품의 문장들을 곱씹어 읽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며 고정적인 생각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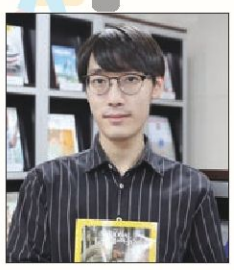
Q. 가장 최근에 읽은 책과 가장 감명받은 책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저의 상황과 맞물리는 시가 많이 실려 있어서 이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조던 피터스의 '12가지 인생 법칙'인데요, 이 책에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의 생활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많은 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Q. 독서의 장점과 실천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독서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당연한 거고요. 독서를 실천할 방법으로는 흥미진진한 소설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재밌는 책들을 읽어 보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범위를 넓혀간다면, 독서의 재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같이 독서 많이 해요^^(웃음)

의생명과학과 14학번 김구



Q.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저는 읽는 책 대부분이 교양이나 전공 서적이에요. 제가 수업을 듣는 과목의 교수님들이 평소에 책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책을 중점적으로 읽어요. 리포트 과제 제출할 때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추천 도서가 거의 다 학교 도서관에 있어 이곳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총 6부작의 책인데요. 베르나르의 작품답게 상상력이 뛰어나고 흡입력이 있는 책이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Q. 독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독서의 장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자기발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학술서, 전공 서적, 영어단어 책이라도 모두 우리가 발전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소설이나 판타지 같은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실 그러한 장르를 통해 상상력을 높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들의 발전으로 인해 소위 말해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요. 영상매체의 경우, 보는 시간보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이 책에 비해 적다고 생각해요. 글로 읽어 보면서 사색에도 빠져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보를 오롯이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지은이와 글의 특성을 가장 많이 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 있다면, 같은 지은이의 다른 책들을 찾아 읽고요. 비슷한 주제의 책과 다채로운 필력을 가진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Q. 독서를 쉽게 실천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사람들은 읽는 것에 대해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라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책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책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독후감, E-book 활용, 토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5학번 장병규



Q. 독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접하며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책을 읽는다는 건 긴 시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힘을 길러줘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은 항상 나에게 빛이 되어주며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Q. 독서를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역사, 경제, 주식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독서가 취미가 되고 습관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본인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의 책부터 천천히 즐겁게 읽기 시작하면 독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아직 적절한 책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주식투자 베스트 비법'입니다. 특정 시점에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을 쉽게 서술해 마음에 들었어요.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는 주가와 대응법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Q.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애플이라는 회사와 스티브 잡스의 일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책 '아이리더십'이었어요. 이 책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게 해주며,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성장과 잡스의 일에 대한 열정, 성취하는 모습 등을 정말 잘 보여준답니다. 완벽함을 꿈꾸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저는 연도 수가 최신인 책과 현실적인 사고 바탕을 토대로 적힌 책을 선호해요. 경제나 주식 그리고 기술 관련 책 중에는 과거에 적힌 책들은 현재에서 봤을 때 오류도 많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 서술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책은 실용적이지 못하기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책을 선택합니다.



당신도 발표울렁증?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되어서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4명 중 3명이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긴장을 느낀다고 합니다. 준비가 완벽해야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겠죠? 발표불안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발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진모델 윤지현(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발표 장소, 미리 연습해보자!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익숙한 장소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발표 장소에서 미리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예행연습 없이 하게 되면 발표에 더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장소에서 미리 연습하면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상상하고, 스스로 호흡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 직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심리적 부담감이 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실제 발표 때는 분명 강의 내용에 따라 입과 몸이 저절로 움직이겠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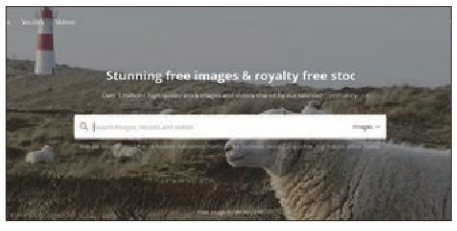
발표 공포증이 생각보다 커서 생각만 해도 힘이 든다고요? 그렇다면 '발표 스터디'를 들어가 친구들 앞에서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만 대본을 연습하면 자신의 발표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발표에 대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터디나 관련 동아리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본인이 고쳐야 할 점도 깨닫고, 내 발표에 대한 정확한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친구들과 함께 발표 연습해서 100%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례들 준비하기



발표는 기본적으로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청중은 듣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미있는 사례를 준비해 가서 발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이야기보따리를 풀면 발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중간에 청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와 같은 간단한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동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를 잘 활용하여 청중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질구질 이미지는 제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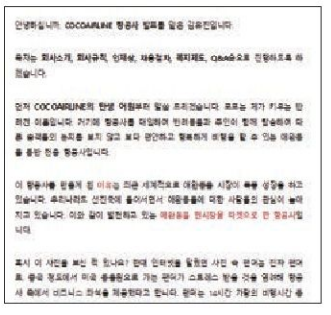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는 화질의 문제가, 화질이 보장되는 이미지엔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저작권 걱정 없는 고화질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고 그냥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위해 저작권 없는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을 위한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추천 사이트: life of fix, pixabay

PPT 이것만은 피하자!



발표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PPT에 텍스트를 많이 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보다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시각화시키는 것이 훨씬 보기 좋으며,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한 슬라이드당 최대 3분장이 적당합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데 네이버보다는 학교도서관이나 관련된 논문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발표 대본 최대한 자세히 쓰자.



발표 공포증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에서 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본에 공을 들이면 흔히 말해 '믿는 구석'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자세히 쓴 대본을 읽어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체크도 해볼 수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발표장에 가서 PPT만 읽는 발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유의한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 잘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 그것이 발표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랍니다.

Microsoft Office 365 무료 사용법



대학교 공부 또는 발표 과제 목적으로 새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신 학생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과제 할 때 필요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구입처에서 따로 깔아주지는 않죠! 직접 구입하자니 금전적인 부담도 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체험판이 아닌 정품을 학교 메일 주소만 가지고 무료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혹시나 발급받은 학교 이메일이 없더라도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운영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Microsoft Office 365 무료 사용법

1. 중원대 포탈 (http://portal.jwu.ac.kr)에 방문하여 오피스 배너를 클릭합니다.
2. 이동한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클릭 시 가입페이지로 이동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정보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5. Office 365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합니다.
6. 로그인 후 사용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제21호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괴산에서의 힐링 스팟

중원인 여러분! 집이 아닌 타지에서의 생활과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이럴 때는 잠시 연필을 놓고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괴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태우 기자 dlxodn0728@naver.com

괴산 자연드림파크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의생명과학과
19학번 서강모

괴산 자연드림파크에 가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색적인 체험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드림파크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저는 그중 음식 만들기 체험과 공방 견학을 추천합니다! 음식 만들기 체험에는 짜장면 만들기, 쿠키 만들기, 우리 밀 머핀 만들기, 한우 불고기 피자 만들기, 치즈 피자 만들기 등 매우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음식을 만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감회도 새롭고 맛도 더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체험 비용은 15,000원 이며, 체험 운영일은 화요일~일요일까지고 체험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으로 최소 하루 전에는 꼭 예약을 해야 체험이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공방 견학은 압착유 공방, 장 공방, 음료 공방, 육가공 공방, 면 공방, 김 공방, 곰탕 공방, 커피와 차 공방, 유탕류 공방 그리고 식품검사 체험이 있습니다. 견학비용은 10,000원이며 총 1시간 20분 동안 공방 4개, 식품검사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방 견학은 화요일~토요일까지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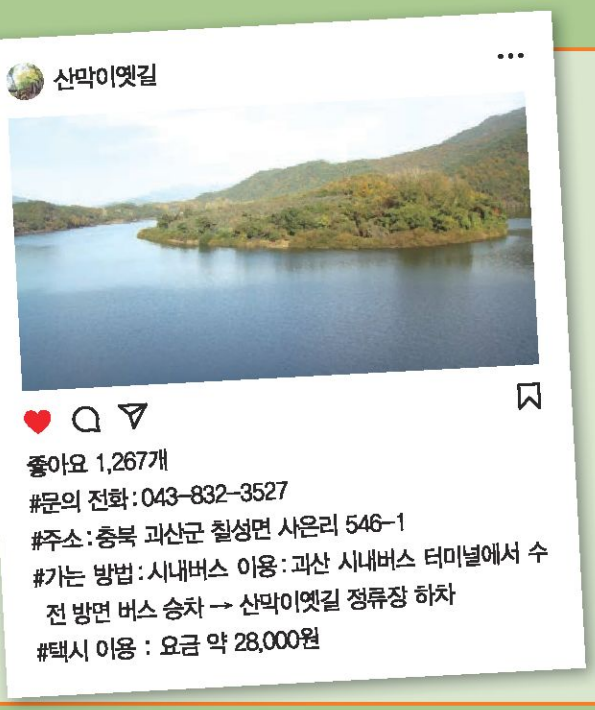


싱그러운 바람과 새소리가 가득한 산막이옛길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9학번 조병모

저는 중원대 학생들이라면 졸업 전에 꼭 한 번쯤은 산막이옛길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면 학업,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순간만큼은 사라집니다. 또한 산막이옛길의 구름다리에서 본 괴산호는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져 모든 잡념을 없애 줍니다. 트레킹 코스는 약 3.3km 정도로 여유롭게 구경하며 걷다 보니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산막이옛길은 관광안내소부터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소나무가 우거진 소나무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농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길은 100여 미터만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숲속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용기 내어 건넜더니 스릴 넘쳤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 호랑이 굴, 여우비 바위굴, 괴산 바위, 앉은뱅이 약수터, 마흔고개 등 곳곳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유람선을 탑승하여 아름다운 괴산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 승선료는 5000원이며 탑승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승객이 어느 정도 모이면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공강시간이나 휴강이 생기면 산막이옛길을 방문하셔서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문광저수지를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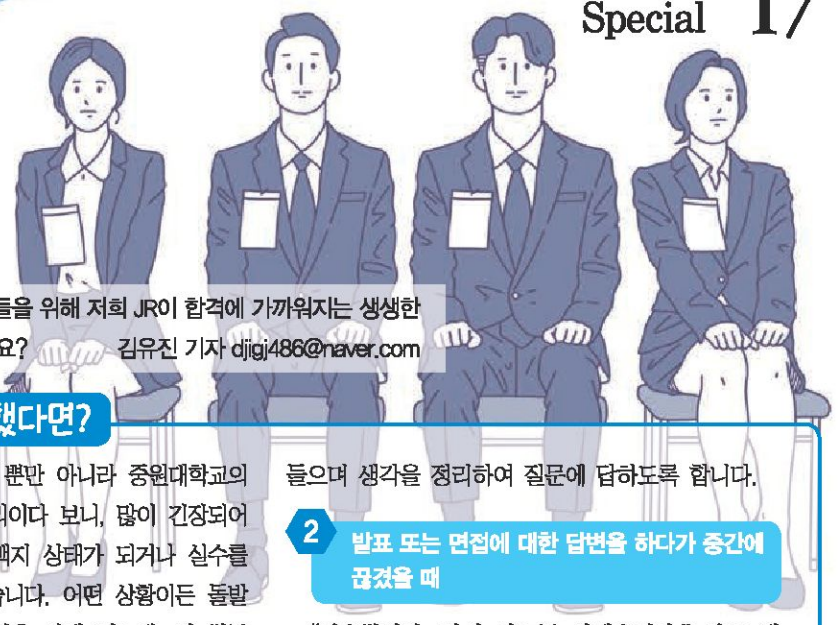
항공재료공학과
19학번 이상진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길은 특히 가을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것을 보면 새삼 가을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한 바퀴에 2km로 짧지 않은 거리로 보통 은행나무 구경은 낮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은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봐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밤에 본 은행나무길이 더 아름답고 운치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1979년 양곡리 주민이던 김환인 할아버지께서 300그루의 은행나무를 기증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빼곡한 은행나무들을 보면 마을 주민분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참고로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길옆에는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소금 랜드가 있습니다. 소금 랜드에는 소금 문화관과 절임 배춧물 염전체험, 바닷물 염전체험, 광개토대왕 비 모사본, 야생화 공원, 소나무공원, 햇살광장, 소금창고 등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1,5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가을이 아니어도 항상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수험생에게 알려주는 노하우

딱! 붙어라 중원대!



수능 응시 후 정시 지원을 앞두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JR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신다면 중원대 합격은 따 놓은 당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 김유진 기자 djgj486@naver.com

면접 준비자세

번저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첫인상 때 좋은 인상을 면접관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다움, 단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색 또는 파마, 진한 화장, 과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복장 같은 경우 중원대학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가장 지향합니다. 만약 교복이 안 된다면 상의는 흰색 셔츠 또는 단색 니트를 추천하고 하의는 면바지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어두운 컬러의 단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함으로써 단정하면서도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 실수를 했다면?

면접이란 것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중원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처음 뵙는 자리이다 보니, 많이 긴장되어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백지 상태가 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돌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학 면접 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관이 말한 내용을 잘 듣지 못했을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하여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면접관이 말하는 내용을 다시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합니다.

2 발표 또는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적당한 앞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여 논리에 따라 재정리하는 여유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3 시험관의 반박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들 때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더 공부하여 확실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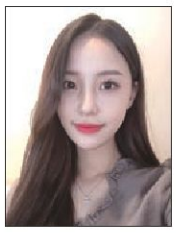
중원대 재학생들이 정시 수험생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19 간호학과 학번 변다원



정시는 멘탈이 강하고 실전에 대비해 훈련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기까지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이를테면 연애 감정이라든가 외모에 신경 쓰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소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로부터 공부가 방해받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만나요. 응원하겠습니다~~!

17 항공서비스학과 학번 강현정



면접에서 한 사람당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질문 당 1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아요. 그 1분 안에 자신만의 강점과 그에 맞는 스토리를 어필해야 해요. 그런데 진부한 내용의 답변으로는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나만의 개성을 담은 답변을 보여줘야 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간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수시 때 지친 체력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정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니까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년에 후배로 만나요~~:)

19 항공교통학과 학번 이대우



열심히 그동안 목표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 물론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과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면접에서 무조건 표정을 밝게 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도 웃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면접에 임했어요. 이건 면접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었어요. 속으로는 당황해도 표정은 무조건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후배들 파이팅!*^^*

16 항공기계공학과 학번 최영민



수험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본인에게 힘이 되는 말은 흡수하고 비난에 불과한 쓴소리에는 상처받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계속 생각하면서 고3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힘내세요!

신입생 장학금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수업료 한 학기 30% 감면) : 수시 또는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중원 특별 장학금A (수업료 4년 전액면제, 4년 기숙사관리비 전액면제, 재학 중 해외연수지원)
: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 성적이 1등급인자

중원 특별 장학금B (수업료 4년 50% 감면)
: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 성적이 2등급인자

중원 특별 장학금C (수업료 2년 50% 감면)
: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 성적이 3등급인자

중원 특별 장학금D (수업료 1년 50% 감면)
: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1개 영역 성적이 3등급 이내인자

중원 우수 장학금A (입학금 및 수업료 4년 전액감면)
: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자로써 신입생 모집에 합격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1개 영역 성적이 3등급 이내인자 *(국가장학금 | 유형 또는 다자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간호학과) 제외

중원 우수 장학금B (입학금 및 수업료 4년 전액감면) *국가장학금 | 유형 또는 다자녀 제외
: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자로써 신입생 모집에 합격(항공운항, 항공정비, 간호학과) 하고 수능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 성적이 3등급 이내인자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입학금 전액 면제) : 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및 수업료 4년 전액 감면) *국가장학금 | 유형 또는 다자녀 제외
: 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입학하는 학생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자

제21호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수시 면접 수험생 설문조사

예비 중원인들이 꿈꾸는 중원대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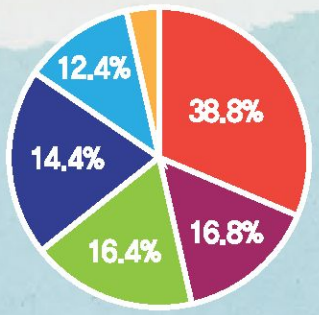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원대학교를 빛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한 2020학년도 수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JR 언론장학기자단에서도 많이 떨리고 초조할 수험생분들을 위해, 떡하니 합격하라는 의미에서 찹쌀떡을 나누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예비 중원인들이 상상하는 중원대학교의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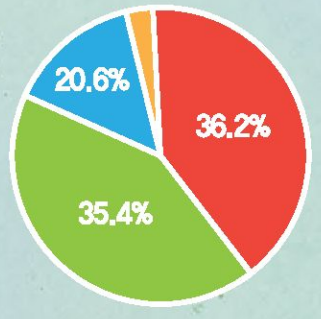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1. 중원대학교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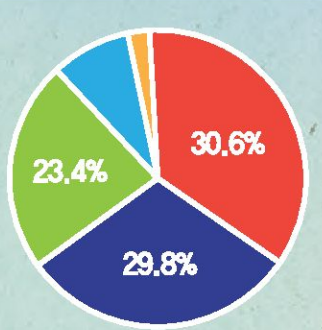
중원대학교를 알게 된 경로로는 SNS (38.8%), 대학 입시 박람회(16.8%), 선생님 추천(16.4%), 지인 (14.4%), 학교 방문 홍보 설명회 (12.4%), 기타 (1.2%)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학과 체험 활동, 입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과 학부모분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중원대학교를 찾아주셨네요! 중원대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홍보하면서 늘 힘써주시는 홍보팀과 홍보대사, 그리고 중원대학교의 많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대학'교육여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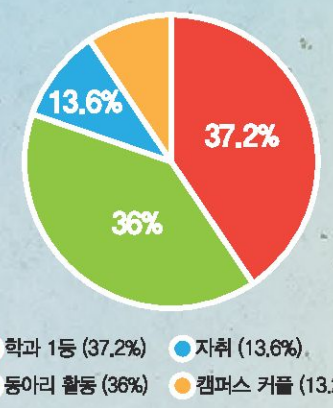
예비 중원인들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여건 중요도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36.2%)과 우수한 교수진(35.2%)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20.6%)와 등록금(7.8%)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 우수한 교수진과 질 좋은 교육 시설,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까지, 모두 갖춘 중원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다른 대학교와 구별되는 '중원대학교' 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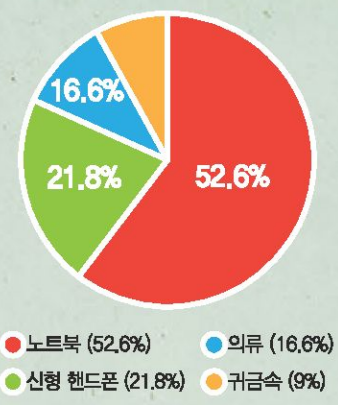
예비 중원인들께서는 다른 대학교와 구별되는 '중원대학교'만의 장점으로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육 시설(30.6%)과 편리한 기숙사(29.8%), 다양한 장학금 제도(23.4%)를 뽑아주셨습니다. 2번 문항인 대학 교육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중원대학교만의 장점이 같다는 점을 주목하면, 중원대학교가 미래형 선도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뻗어 나가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인 어학연수(11%), 기타(2.2%)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타에는 우수한 강사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중원대학교'에 입학한 후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하기만 해도 설렘이 가득한 스무 살의 캠퍼스. 예비 중원인들께서는 중원대학교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제일 꿈꾸고 있을까요? 바로 학과 1등, 과탑(37.2%)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학구열에 불타오르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앞으로의 시험 기간에는 이른 시간부터 열람실에 자리를 잡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36%), 자취(13.6%), 캠퍼스 커플(13.2%)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 대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분야를 전문적인 공부할 수 있는 두근대는 대학생!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준비하며 대학생의 필수 아이템인 노트북을 찾아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역시 예비 중원인들도 대학생이 되어 가장 갖고 싶은 물건으로 노트북(52.6%)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형 핸드폰(21.8%), 의류(16.6%), 귀금속(9%) 순으로 높았습니다.

6. 중원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앞으로 좋은 이벤트 많이 마련해주세요', '질 좋은 수업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근처에 음식점과 부대 시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통학버스 시간대와 장소가 증대되길 바라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원대학교가 더욱 좋은 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신 예비 중원인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머쥘 수 있도록 저희 JR 언론장학기자단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자랑거리 소개

우리 대학은 이게 짱이야!



학우 여러분들은 처음 중원대학교에 입학할 때 많은 학교 중 중원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나요? 혹시 익숙한 학교생활에 속아 학교의 자랑거리를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 JR이 학우 여러분께 학교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점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김경희 기자 xhq117@naver.com

우리의 보금자리 '기숙사'

경찰행정학과 18학번 이예진



우리 대학 기숙사는 정말 짱이예요! 대학 재학생 전원이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매점, 식당, 강의실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게 갖춰진 주상복합 상가 느낌이랄까요?(웃음) 특히 강의실이랑 가까워서 준비하는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넓은 공간은 여러 명이 생활하지만, 개인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고민을 바로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중원대의 미슐랭 '카페테리아'

사회복지학과 15학번 성연빈



저는 카페테리아가 단연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카페테리아는 깔끔할 뿐만 아니라 한식, 중식, 양식은 물론 분식까지 있어서 친구들과 서로 먹고 싶은 점심 메뉴가 달라도 한 장소에서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메뉴의 가격도 저렴해서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늘 즐겁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점심을 먹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테리아는 강의실이랑 가까워서 점심시간이 1시간 밖에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비교과 프로그램'

스포츠산업전공 18학번 최영민



저는 학교에서 다양한 비교 프로그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토익 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산업전공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과와 연관된 자격증에 관해 관심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스포츠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학과 학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어서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박태환을 꿈꿀 수 있는 '수영장'

항공재료공학과 19학번 이태우



저는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중원대학교는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이동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으며, 재학생 할인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통해 더욱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영장에는 샤워실만 있지만 중원대학교 수영장은 수영한 후 사우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보기 전에는 시설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가보니 청소도 잘 되어있고 수영장도 크고 넓어서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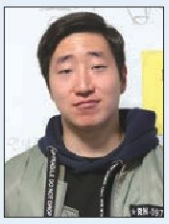
간호학과 19학번 오은진



저는 우리 학교 풍경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밤하늘을 수놓은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에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머리를 식힐 겸 운동장을 자주 산책하곤 하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예쁜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해 밖으로 나가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하다가 숨이 찰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네온사인으로만 가득한 서울의 밤을 보다가 은은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커피가 무료인 '잉글리쉬카페'

경영학과 15학번 김하림



저는 잉글리쉬카페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잉글리쉬 카페의 특징은 다른 카페들과 달리 모든 메뉴가 무료라는 점과 음료를 시키지 않아도 부담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잉글리쉬카페를 이용하는데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잉글리쉬카페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영어튜터링도 해 주셔서 활용을 잘 한다면 해외 연수보다 훨씬 나은 영어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리시카페가 교류가 많아지는 곳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의 풀리처 '언론장학기자' 활동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유진



언론장학기자단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활동하면서 카메라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우고, 학보와 블로그 기사 등을 쓰면서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장학금입니다. 등록금이 부담되시는 분이나 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은 꼭 지원하셔서 장학금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꽃들이 있는 '식물원'

항공재료공학과 15학번 한상영



식물원이 가장 최고라 생각합니다. 식물원이 있는 학교는 아마 중원대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입장료가 없고 4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우울할 때 줄곧 식물원을 쭉 둘러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참고로 식물원 내에는 전신거울이 있는데, 배경이 너무 예뻐서 인생 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한곳에 있는 '박물관'

사회복지학과 15학번 정다훈



중원대는 세계의 모든 만물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품은 돌인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기 마련인 그런 돌을 모아 음식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재학생은 무료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시 면접자가

꼭 봐야 할 수시면접현장!!

우리 대학에서 2020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 실기고사가 있었습니다. 방문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긴장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간식을 제공하고 학과진로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수험생들에게 면접은 역시나 떨리겠죠? 그래서 저희 언론기자단 'JR'이 정시 면접을 앞두신 수험생의 긴장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시 면접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정시 면접을 앞두시고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가 준비한 수시면접 때의 사진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긴장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현장실습이 궁금하다면 학과진로체험부스로 놀러오세요~



사회복지학과의 궁금한점 다물어보는 걸로!!



간호학과의 직접적인 상담!~



찹쌀떡 드시고 합격 딱!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항공서비스학과의 기운을 팍팍!! 합격 하세요~ㅅ



총장님께 설명하는 드론의 원리!! 참 쉽죠~잉



수시 면접의 긴장된 사진을보면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여러분의 합격을 소원트리가 이루어드립니다~



간호학과의 건강테스트 받고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부모님들도 무료 검사 한번 받고가세요~



자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응원메세지!!!



총장님의 기운 팍팍!! 총장님의 기운을 부모님도 받아가세요!~~~

157만의 글로벌 유튜버 PICK!

Sam과 함께 추억을 쌓으Sam

중원대 학우 여러분 유튜버 Sam Gladiato를 아시나요? 바로 구독자 15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투버입니다! 이날 샘의 런닝맨, tinder(Yes or No게임) 콘텐츠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윤지현 기자 apashi01@naver.com



Sam 채널의 출연자들이에요~ 한 눈으로 봐도 멋있지 않나요?



출연자들의 데이트 신청 좋으면 Yes! 싫으면 No! Tinder 촬영 현장입니다. 우리 대학 학우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웃고 떠드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출연진들이 런닝맨 촬영 전 다 함께 회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뭇 진지한 모습이지만 재미있게 촬영을 끝냈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157만명을 소유한 Sam Gladiator 입니다.

Q. 우리 중원대학교의 첫인상이 어땠나요?

일단 처음 왔을 때 학교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캠퍼스가 매우 커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건물 외관도 고급스러워서 궁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카페테리아에 갔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놀랐고, 음식이 맛있어서 두 번 놀랐습니다.

Q.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